(第 3 種郵便物認可)

平協

發行人 編輯人 金基喆
印刷人 馬友石

發行所
韓國天主教平信徒使徒職全國協議會
서울 城北區 東仙區 5가 160
電話：92－5145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그實踐要綱을 遵守한다.

平信徒재교육활발

전국서 5천명 參加

피정은 서울 오류동이 最高

○… 금년 한 해 동안 平信徒의 의식 구조 개선과 信心培養을 위해 신자 재교육 …○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발하게 전개된 것으로 추정돼 평신도 활동이 그 어느 때 …○
○…보다도 요청되는 혁시점에서 다행스러운 일로 높이 評價받고 있으나 앞으로 …○
○…평신도 활동을 보다 적극적, 진취적으로 펴 나가기 위해서는 신자 재교육 운…○
○…동을 体系的·能動的인 次元으로 끌어올려 실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월 현재

보고된 피정 실적

성당명	개 최 일	피 정 제 목	참가인원
용 산	3월19~20	화해와 세신을 위한 크리스찬 생활	75(명)
홍제동	3월16~20	공동체 묵상회	42
신호동	3월26~27	내적 성숙을 통한 본당 발전	48
시 흥	3월6일	교회의 일치와 공동체	42
서대문	4월4~6	현대인의 신앙 생활	
성암리	3월26~27	화해와 세신을 위한 크리스찬 생활	58
행상동	3월1~13	크리스찬 생활	42
아현동	4월6~8	신앙의 실천 카	1,200
영등포	4월7일	봉사하는 생활	17
동대문	3월26~27	크리스찬의 사랑	52
성북동	1월4~7		12
성북동	1월13~15		78
성화동	3월30~31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	360
신정동	3월28~31	성령 세신	60
남가좌	3월29~31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1,500
쌍림동	7월9~10	화해와 세신을 위해	40
〃			40
동두천	7월28~29	크리스찬 생활의 연수회	51
봉천동	8월4~5		30
가 좌	8월6~7	신자 재교육	22
압신리	6월4~7		10
구의동	9월10~11	화해와 세신을	46

미보고 직접 조사분

성 당 명	개 최 일	참가인원
해 방 촌	1월1~2	38
충북·진천	1월23~24	42
오 류 동	2월12~13	50
충북·진천	2월26일	45
정 릉	3월5~6	50
오 류 동	3월12~13	48
춘천죽림동	3월19~20	45
이 문 동	3월24~25	51
성 남 동	3월26~27	38
명 수 대	4월1~2	51
면 목 동	6월11~12	48
안 현	6월18~19	46
강천·황지	6월25~26	45
안 현	7월9~10	33
수원·방안	7월27~28	49
수원·방안	8월4~5	48
가 좌 동	8월6~7	29
수원교구 ·교 사 회	8월27~28	46
수원·용인	9월12~13	36
오 류 동	9월14~15	61

全敎友 참가할 길 열어야

피정은 서울 오류동이 最高

今年들어 9월말까지 평신도 재교육을 실시한 本堂(平協에 보고된 것)은서 이 3회(서울·오류동)을 敎區를 중심으로 한 36個 본당으로 42회에 걸쳐 이 9월까지 1회의 피정 실시됐는데 動員된 延人員만도 4천7백6십9名에 달했으며 한 본당에서 가장 많이 피정을 실시한 것보다 높은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신자 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평신도 활동을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펴나가기 위해서 計劃 금년 한해는 신자들의 資質向上이라는 側面에서 각 본당이 보람있게 보낸 한 해로 總評할 수 있겠다.

한편 본당별 피정 실시 실적은 별표와 같다.

서울大敎區는 愼重을 기하기 위해 그동안 施行을 되었어도 聖体를 모시는 영성체」방법을 지난 10월 처음 시행 하고 있다.

「손으로 받아 모시는 영성체」방법은 지난 74년 4월 韓國主敎會議에서 승인한바 있으나 聖体에 대한 尊嚴性 결여 등 문제점이 많아 서울 大敎區에서는 시행을 보류해 왔는데 그동안 一線 司牧者들의 提言과 이의 妥當性 및 적합한 점을 勘案 서울大敎區에서도 이 方法을 채택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손으로 받아 모시는 영성체」방법이 채택되면 ① 信者들이 제대나 성체 앞에 정성 ② 손에 성체를 받을 때 ③ 信者는 성체를 받은 후 自己자리로 걸어가면서 성체를 영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성체를 받은후 옆으로 몇걸음 비켜서서 영해야 한다(이는 성체를 집으로 모시고 가려는 광신적 또는 우발적 사건을 막기 위해서이다) ④ 손에 성체가루가 붙어있으면 입에 정성되이 모셔야 하며 성체를 聖血에 적신 경우 即 양형 영성체때엔 반드시 입으로만 영해야 한다.

이 지켜야 할 事項은 다음 者가 「그리스도의 몸」하면 「아멘」하고 서서 정중히 받아야 한다.

이 과 같다.

새 영성체 채택

타당성·便理등 감안 손으로 받아 모시게

平協 指導神父에 金壽昌 국장 任命

서울大敎區는 지난 9월 8일 선종하신 유 수철 서울大敎區 꾸르실료 및 平協 指導神父후님에 敎區 司牧局長인 金壽昌 神父를 任命했다.

聖祈후원회구성

서울敎區

서울大敎區는 지난 10월 4일 神學生 後援會와 聖祈委員會를 「敎區 聖祈 後援會」로 統合하고 새로 統合發足된 聖祈 後援會의 活動을 적극 뒷받침 해 주도록 各 本堂 神父님들께 促求.

평화의 날 메시지 (요약)

平和를 위한 정의는 사랑이다!

본인은 운동의 1978년을 시작하면서 전세계와 인류를 향해 다시 한번 "평화!"라고 인사드리고저 합니다. 평화는 아직 우리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평화는 결코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평화는 대지와 하느님 섭리의 열매지만, 우리 활동의 산물 이기도 합니다. 평화는 서로 참견하지 않고 방해하지도 않으며 타성이나 향락 속에 조용히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행동을 기초로 하는 균형입니다.

본인은 사회 생활에서 집단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지도자, 정치가, 사상가 등 책임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금 이 가공할 만한 파괴력 평화에 대하여 성실하게 반성할 것을 촉구하고저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평화를 위하여 수많은 진실된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고 있음을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현대의 무력 현상과 아울러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사명이기도 합니다.

平和를 위한 정의는 사랑이다!

이제 아무도 성실하게 구현할 때 확립 이를 도피하면서 움바른것 감히 수많은 인간 대신에 이기적인 생각에 젖어 있음을 살유하는 전쟁 오늘날 국제기관들은 실어 가능한 것을 찾는 풍조을 행복의 수단으로 제로 이런 방법으로 평화 속에서 폭력이 탄생한다는 로 동원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람을 비열하게 는 않습니다. 그 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들고 이성의 차원에서 만큼 현대의 무력 현상과 아울러 평화를 위협 육정의 차원으로 하락시킴 이로서 자유와 정의를 수히 반아들이지 못하고

성탄메시지

金壽煥추기경

응달에서 떨고 있는 형제에게 勇氣를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세주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신 구세주의 은총과 평화를 빕니다.

성탄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기쁜 날입니다. 왜냐 하면 세상을 구하신 구세주가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의 멍에와 죽음의 영원한 어두움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또한 누구에게보다도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쁜 날입니다. 그리스도 친히 산상수훈(山上垂訓)에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우는 사람들, 의(義)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쁜 날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교적으로까지 버림받은 모든 사람과 일치되었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이들 곁에서 계셨읍니다. 가난은 마치 그의 생애의 상징인 양 그는 죽기까지 가난했읍니다.

구세주 그리스도가 취한 가난은 오로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당신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이었읍니다. 그들을 사랑하기에 모든 부귀(富貴)를 버리시고 인생을 가난 속에서 보내셨읍니다.

그는 첫째, 나신 때에도 베들레헴이라는 한촌(寒村)에서 짐도 아닌 외양간에서 태어나셨고, 평생을 두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적빈(赤貧)이었읍니다. 참으로 세상 재물이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읍니다. 뿐더러 정신적으로도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뜻에 당신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십자가라는 극도의 형벌앞과 비참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었읍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을 때에는 인간 중에도 말자(末者), 가장 비천한 자가 되었읍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그의 몰골은 망가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었고,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음 (이사야 53·14)」. 동정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나 바로 이러한 가난 속에서 그는 평신공히 모든 인간말자(人間末者) 누구보다도 먼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교적으로까지 버림받은 모든 사람과 일치되었읍니다. 이 일치는 진정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읍니다. 그리스도는 가난한 이들이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느님의 나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온 인류의 꿈이요 미래의 이상(理想)이었읍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받는 兄弟의 벗

성·빈첸시오·아·바오로会

1、목적 : 성빈첸시오아바오로회(이하 빈첸시오회로 약칭함)의 목적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혹은 물질적인 궁핍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어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는 데 있다.

2、창설 : 빈첸시오회가 창설된 역사적 배경은 19세기 초 유럽 제국의 무산층 가운데서 「세계에는 이제 크리스챤 사랑이란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떠들어 댄 것에 대한 행동적 응답에서 비롯된다。 1833년 당시 파리 소르본 대학교의 학생이던 프레데릭·오자남이 5、6명의 동료학생들과 한 뜻이 되어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데 일생을 바친 빈첸시오 (원선시오라고 표기되어 왔음) 성인의 뜻을 받아 빈첸시오회라는 것을 조직하게 된 것이 창설의 동기였다。 빈제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으며 국제 본부에서는 각국 빈첸시오회의 주요 활동사항을 포함한 전세계 빈첸시오회의 주요 소식을 원보로서 프랑스어와 영어로 발간하여 각국 본부에 배포하고 있다。

3、세계의 현황 : 빈첸시오회의 활동은 가위 범세계적인 것이다。 5대륙 100개국 이상에 걸쳐 10만명 이상의 형제 자매들이 묵묵히 애덕 활동을 하고 있다。 빈첸시오회 국내에 일선 활동 단위인 빈첸시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활동 회원은 1천 9백 40명을 헤아리고 있다。 빈첸시오 협의회가 하나도 구성되어 있지 못한 교구는 수원 교구、대구 대교구 안동 교구 및 제주 교구이다。 이 지역에서도 빈첸시오 협의회를 시급히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빈첸시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교구에는 교구 단위 중앙 이사회나 몇 개 협의회를 묶은 지구 이사회가 있다。 협의회는 산하 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에는 빈첸시오회 한국 본부회장 : 한 명은 안드레아가 있으며 총무부、재무부、국제부、교육부 및 홍보부로 조직되어 있다、한국 본부는 국내 빈첸시오회 활동과 자매 결연국인 뉴질랜드 및 파리에 있는 국제 본부와 최소한 한 달에 1회 이상 서신 연락을 하고 있다。

4、우리나라의 현황 : 빈첸시오회가 우리 나라에 소개된 것은 1961년이다。 전국적으로 94개 본당에 회원이 그것이다。 크리스챤이면 남녀노소 또는 빈첸시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활동 회원은 1천 9백 40명을 헤아리고 있다。 빈첸시오 협의회가 하나도 구성되어 있지 못한 교구는 수원 교구、대구 대교구 안동 교구 및 제주 교구이다。 이 지역에서도 빈첸시오 협의회를 시급히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빈첸시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교구 단위 중앙 이사회나 몇 개 협의회를 묶은 지구 이사회가 있다。 협의회는 산하 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에는 빈첸시오회 한국 본부회장 : 한 명은 안드레아가 있으며 총무부、재무부、국제부、교육부 및 홍보부와 주기 청주소 방문 및 도와 주기、이재민 방문 및 요한 금전이나 물자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2) 명예 회원 : 명예 회원은 빈첸시오회의 취지에 찬동하면서도 직접 활동할 수 없는 경우、명예 회원으로 가입、활동 회원의 활동을 금전 또는 물자로 보조하여 주는 회원을 말한다。

6、77년의 주요 활동 : 빈첸시오회서 금년에 한주 방문하면서 본회 활동에 관하여 토의하고、협조한다。 77년 11월 18일 — 20일 사이에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빈첸시오회 세계총회에 한국 빈첸시오회 대표 한 사람이 참석하여 우리 나라의 활동 현황을 소개하였다。

8、끝 말 : 빈첸시오회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형제를 특히 외교인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어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지기 쉽도록 정성을 쏟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보아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실로 크다。 사실 유대인들의 훌륭한 생활 습속에 비추어 보면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의 이 사업이 계속 되어질 것으로 믿어 기쁨을 갖는다。

평신도의 손으로 만들어진 교재 제 1 권이 판을 거듭해서 보급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초대 교회의 초석을 이루었던 평신도들의 활동상을 보는 것 같아 기쁘며 결실을 거두기에 충분한 교재라고 본다。

〈추천사 발췌문〉

값 700 원

☎ (94) 0670

平信徒의 使命

마산 교구 평협회장 박 재 석

○… 평신도란 말은 구약 성서의 70인역에서는 이교 백성에…○
○…대한 하느님의 백성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오…○
○…늘의 교회에서는 성직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신자를 뜻하…○
○…는 말로서 사용되고 있다。 평신도는 사도직 수행의 권리…○
○…와 의무를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일치에서 부터 받는다。…○
○… 물론 평신도는 성세 성사와 견진 성사로써 그리스도와…○
○…그의 신비체에 일치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와의 일치의…○
○…가장 적절한 방법은 기도와 성사이다。

스키레벡(Schillebeeckx)는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성사라고 했다。 따라서 평신도는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서 충실히 생활해야만 그의 사도직이 효력을 발생하고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교회 내의 인간적 구성 요소로 인해서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때도 있다。 하지만 이것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 할 때 얼마나 풍부한 효과를 가져올 때도 있다。 하지만 이에서 얼마나 자발적이었으는

가톨릭 농촌 여성회

우리는 이렇게 일했다

회장 김영자

不條理한 속박에서 解放을

기도와 사랑에 바탕둔 家庭되게

연간 30회 마을 단위로 敎育도

1. 창설: 한국 가톨릭 농촌 여성회는 작년(1977년) 1월 발안 천주교회로 「한국 가톨릭 농촌여성회」인 것이다. 그 이전 부터 농촌 여성들의 의식 향상과 권리 주장을 위해 발족됐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과 겸손을 바탕으로 가정의 평화와 이웃사랑을 실현하는 농촌 여성의 운동이다.

농촌 여성의 자각과 활동을 통해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창조하신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수천년 동안 가정과 사회 속에서 그 모든 행동이 규제당하고 관습 속에서 제한되고 억눌려 왔다. 이제 여성들은 새로운 민주 사회 발전과 질서 속에서 그 역할이 중대해 가고 또 그 위치가 중요시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 소수의 인텔리들에게만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우기 그 오랜 기간 누적되어 내려온 농촌의 가난은 농촌 여성을 더욱 더 소외시키고 있다. 여기서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심각히 느낀 농촌 부녀들이 지난 1월 한겨울 추운 날씨에 모든 가정일을 제쳐 놓고 발안 천주교회 교육원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있었던 제2차 농촌 여성 지도자 세미나에서 우리 여성들은 생활을 개혁하고 무지와 그릇된 관념에서 해방되고, 무기력, 무능력에서 벗어나고, 사회의 차별 대우를 거부하고, 부조리한 속박 속에서 자유를 찾고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만큼의 행복을 쟁취할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성서연구 운동」 「행복한 가정 운동」을 전개한다.

그 방법으로 농촌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속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웃 사람들과 같이 구원받기 위해 이웃 농촌 여성들에게 빛을 주고 희망을 나누어 안으로 신앙을 다져가며 지도와 사랑에 바탕을 둔 행복한 가정 생활과 더불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농촌 여성 단체를 만들기로 하였다.

이 뜻을 모은 결과가 바로 「한국 가톨릭 농촌여성회」인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회(수원 교구) 교육원에서 수행할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여성의 자각과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사업으로 연간 3회의 지도 자 세미나와 연간 30회의 부락 단위의 현지 교육을 실시한다.

(2) 농촌 여성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사 연구 사업을 실시한다.

(3) 농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의 뜻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2. 활동 현황: 본회가 창설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아서 그 활동과 성과가 아직 미비하나 회원들의 열성은 놀라울 정도이다.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는 회원들간의 유대와 정보 교환, 학습 자료의 제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격월로 〈농촌부녀〉지를 8면으로 발간하고 있다. 현재 7월 22일~24일까지 2박 3일간 수원 교구 교육원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세미나가 지난 7월 22일~24일까지 2박 3일간 수원 교구 교육원에서 개최되었다.

① 농촌 여성의 노동과 여가

② 농촌 여성의 진강

③ 농촌 여성의 영양

④ 교육과 농촌 여성

⑤ 농촌 사회 구조와 농촌 여성의 지위 등의 주제 아래 각 지역에서 45명이 참석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제기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경제 성장의 결과 농촌의 농업 노동력의 부족은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세째로 농촌 여성 문제 세미나의 결론을 기초로 하여 전국적인 농촌 여성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 하기 위한 조사 사업을 펴기로 했다. 구 자료를 회원들의 연구 과제로 제공 하기로 하였다.

네째로 농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생활개선 나아가서는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부락 공동의 노력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부락 단위의 부녀 단체를 조직하기로 한다. 그 지역에 맞는 협동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키워 나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 모두의 과제라 놓고 있다.

다섯째로 공소 성모회 활동을 통하여 농촌 교우 가정의 신앙을 강화하고 농촌 선교 사업에 협력하기 위한 활동으로 교리연구, 성서 연구를 통하여 권장하기로 한다. 이에 농촌여성을 위한 교리 교육, 자녀들의 신앙적인 양육, 농촌 가정의 신심 생활을 위한 알맞는 교리서와 지도서를 보급하며, 「행복한 가정운동」을 공소 단위 성모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여섯째, 농촌 여성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실생활과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규학교 교육 수준이 낮은 농촌에서도 남존여비인 부녀〈농촌부녀〉지를 4면에서 8면으로 증면 발행하기로 했다. 습에 의한 차별의식 때문이다. 점점 늘어가는 다양한 역할의 요구를 충분히 해 낼 수 있도록 정규학교 교육이 아닌 사회 교육이 량 역할을 하여 명실공히 농촌 여성 운동의 지침서 임을 눈치채고 몰려온 택시들을 타고 식장인 원동 성당에 속속 당도했다.

「착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이런 글귀의 경축아치, 성당 종탑에서 울려 드리운 만국기들이 경축분위기를 한결 돋구었다.

오전 11시 많은 하객들이 원동 성당 마당을 메운 가운데 이날의 주인공인 지주교를 비롯 김 추기경 윤 공희 대주교 정 진석주교, 교황대사, 노 기남대주교, 장 병화주교, 김 재덕주교 이 문희 주교, 김 남수 주교 수도회 장상 등 사제단이 입장, 경축 미사가 봉헌됐다.

이 자리에는 함 석헌, 문 창준, 김 기철, 홍 성철, 박 희섭 씨와 이 소동 1군사령관, 송 호림, 박 영록 정 대철 의원, 박 종성 강원도 지사, 이 창석 원주시장, 원성 군수, 전국 광산노조부 위원장 등 강원도 일원의 기관장 전원이 참석했다.

연숙한 국민 의례로 시작된 경축식에서 김 추기경은 「행복하여라, 옳은 일 때문에 쫓기는 사람들… 하느님의 정의와 사랑이 충만된 나라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촉구 하면서 전국 교회 내외의 인사들이 보내온 축의와 축하 전문에 감사했다.

한편 원주 교구는 경축식에 이어 성직 수도자와 타교구 인사들을 위해 학생 주교관 뒤뜰에서 중식을 베풀었다.

池學淳主敎 은경축 축하

원동성당서 베풀어

원주 교구장 지 학순 주교의 사제 서품 25주년 은경축 축하 행사가 열린 날 오전 원주 고속 버스 터미널과 원주역에서 쏟아져나온 많은 하객들은 큰 행사를 치르는 듯 들떠 있었다.

경축 미사는 「정의와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존적 모습이며, 크리스챤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고 격찬했다.

김 추기경은 지 주교를 가장 기쁘게 하는 선물은 「빛이 되어라」는 지 주교의 모토에 따라 「우리 자신도 이분과 똑같이해서 우리 나름대로 빛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황 대사는 교황 바오로 6세의 축의를 전했고 이어 박 종성 도지사의 축사가 있었다.

지 주교는 답사를 통해 은경축을 안하려했으나 교구 신부들과 신자들의 극성(?)에 양보를 하다보니 이런 자리가 마련되게 됐다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벗이 되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소신과 양심에 따라 끝까지 살아 가겠다」고 다짐하고 우리 모두 「하느님의 정의와 사랑이 충만된 나라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촉구 하면서 전국 교회 내외의 인사들이 보내온 축의와 축하 전문에 감사했다.

한편 원주 교구는 경축식에 이어 성직 수도자와 타교구 인사들을 위해 학생 주교관 뒤뜰에서 중식을 베풀었다.

---

3. 활동: 본회는 지역 방문은 활동 경험과 생활 체험을 소개하며 제기된 문제를 공동의 과제로 삼아 토론 과정을 통해서 신앙심을 더욱 강화시키고 사랑을 행동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의식 개발에 힘쓰고 있다.

본회의 1977년도 사업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교육과 부락 공동 활동을 통하여 농촌 여성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 여성의 지위와 환경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첫째로 활동의 민반칭이 되는 정신적 지주를 세우는데 필요한 교육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농한기 중에 부락에서 공동활동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각 지역에 신재해있는 농촌 여성 단체, 농촌본당 성모회 및 농촌 여성들의 회원, 회원 단체로 만들어 부녀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그 외에도 종교 회, 모론회, 학습회 등을 조직하여 부락 단위로 강습회장히 신각한 상태인 것만은 사실이다.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 농촌 여성들의 지역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의 발전과 새로이 증가되는 역할에 알맞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한 상태하에서 방향을 잃고 주체성이 없이 이끌려만 가는 활동이 대부분이었다. 이것 또한 체계성 없이 실행되어 온 까닭에 농촌 여성들과 직접 이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도시보다 농촌 선교 사업에 협력하기 위한 활동으로 교리연구, 성서 연구를 통하여 권장하기로 한다. 이에 농촌여성을 위한 교리 교육, 자녀들의 신앙적인 양육, 농촌 가정의 신심 생활을 위한 알맞는 교리서와 지도서를 보급하며, 「행복한 가정운동」을 공소 단위 성모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여섯째, 농촌 여성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실생활과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규학교 교육 수준이 낮은 농촌에서도 남존여비인 부녀〈농촌부녀〉지를 4면에서 8면으로 증면 발행하기로 했다. 습에 의한 차별의식 때문이다. 점점 늘어가는 다양한 역할의 요구를 충분히 해 낼 수 있도록 정규학교 교육이 아닌 사회 교육이 량 역할을 하여 명실공히 농촌 여성 운동의 지침서 임을 눈치채고 몰려온 택시들을 타고 식장인 원동 성당에 속속 당도했다.

「착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이런 글귀의 경축아치, 성당 종탑에서 울려 드리운 만국기들이 경축분위기를 한결 돋구었다.

오전 11시 많은 하객들이 원동 성당 마당을 메운 가운데 이날의 주인공인 지주교를 비롯 김 추기경 윤 공희 대주교 정 진석주교, 교황대사, 노 기남대주교, 장 병화주교, 김 재덕주교 이 문희 주교, 김 남수 주교 수도회 장상 등 사제단이 입장, 경축 미사가 봉헌됐다.

이 자리에는 함 석헌, 문 창준, 김 기철, 홍 성철, 박 희섭 씨와 이 소동 1군사령관, 송 호림, 박 영록 정 대철 의원, 박 종성 강원도 지사, 이 창석 원주시장, 원성 군수, 전국 광산노조부 위원장 등 강원도 일원의 기관장 전원이 참석했다.

연숙한 국민 의례로 시작된 경축식에서 김 추기경은 「행복하여라, 옳은 일 때문에 쫓기는 사람들… 하느님의 정의와 사랑이 충만된 나라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촉구 하면서 전국 교회 내외의 인사들이 보내온 축의와 축하 전문에 감사했다.

한편 원주 교구는 경축식에 이어 성직 수도자와 타교구 인사들을 위해 학생 주교관 뒤뜰에서 중식을 베풀었다.

---

4. 교육과 농촌 여성: 적 사회적으로 균등한 대우와 문화적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내용이 몇몇 신문에 보도가 되어 농촌 여성의 심각한 문제가 사회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5. 농촌 사회 구조와 농촌 여성의 지위: 농촌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권리 주장을 위해 발족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아서 그 활동과 성과가 아직 미비하나 회원들의 열성은 놀라울 정도이다.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는 회원들간의 유대와 정보 교환, 학습 자료의 제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격월로 〈농촌부녀〉지를 8면으로 발간하고 있다. 현재 7월 22일~24일까지 2박 3일간 수원 교구 교육원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세미나가 지난 7월 22일~24일까지 2박 3일간 수원 교구 교육원에서 개최되었다.

① 농촌 여성의 노동과 여가

② 농촌 여성의 진강

③ 농촌 여성의 영양

④ 교육과 농촌 여성

⑤ 농촌 사회 구조와 농촌 여성의 지위 등의 주제 아래 각 지역에서 45명이 참석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제기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경제 성장의 결과 농촌의 농업 노동력의 부족은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세째로 농촌 여성 문제 세미나의 결론을 기초로 하여 전국적인 농촌 여성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 하기 위한 조사 사업을 펴기로 했다. 구 자료를 회원들의 연구 과제로 제공 하기로 하였다.

네째로 농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생활개선 나아가서는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부락 공동의 노력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부락 단위의 부녀 단체를 조직하기로 한다. 그 지역에 맞는 협동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키워 나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 모두의 과제라 놓고 있다.

다섯째로 공소 성모회 활동을 통하여 농촌 교우 가정의 신앙을 강화하고 농촌 선교 사업에 협력하기 위한 활동으로 교리연구, 성서 연구를 통하여 권장하기로 한다. 이에 농촌여성을 위한 교리 교육, 자녀들의 신앙적인 양육, 농촌 가정의 신심 생활을 위한 알맞는 교리서와 지도서를 보급하며, 「행복한 가정운동」을 공소 단위 성모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여섯째, 농촌 여성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실생활과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규학교 교육 수준이 낮은 농촌에서도 남존여비인 부녀〈농촌부녀〉지를 4면에서 8면으로 증면 발행하기로 했다. 습에 의한 차별의식 때문이다. 점점 늘어가는 다양한 역할의 요구를 충분히 해 낼 수 있도록 정규학교 교육이 아닌 사회 교육이 량 역할을 하여 명실공히 농촌 여성 운동의 지침서 임을 눈치채고 몰려온 택시들을 타고 식장인 원동 성당에 속속 당도했다.

「착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이런 글귀의 경축아치, 성당 종탑에서 울려 드리운 만국기들이 경축분위기를 한결 돋구었다.

오전 11시 많은 하객들이 원동 성당 마당을 메운 가운데 이날의 주인공인 지주교를 비롯 김 추기경 윤 공희 대주교 정 진석주교, 교황대사, 노 기남대주교, 장 병화주교, 김 재덕주교 이 문희 주교, 김 남수 주교 수도회 장상 등 사제단이 입장, 경축 미사가 봉헌됐다.

이 자리에는 함 석헌, 문 창준, 김 기철, 홍 성철, 박 희섭 씨와 이 소동 1군사령관, 송 호림, 박 영록 정 대철 의원, 박 종성 강원도 지사, 이 창석 원주시장, 원성 군수, 전국 광산노조부 위원장 등 강원도 일원의 기관장 전원이 참석했다.

연숙한 국민 의례로 시작된 경축식에서 김 추기경은 「행복하여라, 옳은 일 때문에 쫓기는 사람들… 하느님의 정의와 사랑이 충만된 나라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촉구 하면서 전국 교회 내외의 인사들이 보내온 축의와 축하 전문에 감사했다.

한편 원주 교구는 경축식에 이어 성직 수도자와 타교구 인사들을 위해 학생 주교관 뒤뜰에서 중식을 베풀었다.

---

6. 활동 방향: 본회의 사무실은 「수원 시화서동 100번지」, 천주교 수원교구 교육원」 안에 있으며 언제나 모든 농촌 자매들에게 문을 열어 놓고 있다.

성심껏
교우님들께는
중심가에 비하여
반액 정도로
봉사하겠읍니다

SUNG SIM

일급 재단기공사

성심라사

최 마태오

(서울 돈암동 태극당위) 전화 ⑨③ 1150

각종 공예품
각종 사기일절
명찰·완장·명패
우승기·우승컵
금·은·뺏지
패난트·주물간판
메달·뺏지
트로피·상패

※ 휘장계의
톱메이커

성금사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 3가 95번지
☎ 본점 : 25-5558
공장 : 44-7041~3 교20번
대표 배 (레오볼드) 광일

김대섭 外科

원장 김대섭(미카엘) 博士

* 전문科目 · 成形外科

☎ 776 - 1452

서울 · 중구 충무로 2가 66-10
(충무로 태극당앞)

여 치과

의학 박사 여 인 행

동대문구 답십리 2동 53~6
제일은행 답십리지점 2층

☎ 965~8862

奉仕와 啓蒙의 나날

가톨릭 學生会의 어제와 오늘

가톨릭학생회 전국 협의회
회장 류 제 호

옛날부터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학생이 있는 사회에서는 학생 활동적이고 창조적인 학생 그룹이 존재하였었다. 이들 그룹에서 부터 새로운 논리는 싹을 피워 왔었고 사회의 변혁은 시작되기 일쑤였다. 학생이라는 낱말이 의미 하듯이 이들은 배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을 하여 왔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생각에 「진리」라고 느껴지는 것에는 생명도 바칠 수 있었다. 이러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학생 전단, 학생 사회 바로 학생회인 것이다. 가톨릭이 우리 나라에 정착하게 된 지도 이미 200년이 지났다. 여기에서 우리 학생사회는 어떻게 움직여 왔으며 무엇을 해 왔는지 잠시 살펴보고 현재 우리 가톨릭 학생회를 소개하겠다.

1. 한국 가톨릭 학생운동 약사

㉮ 총연합회의 창설까지

우리 나라에서 가톨릭학생회의 창설까지 회관의 건립과 주교단의 가톨릭 학생회는 후원, 60년대에서 확장 일로에 있던 Student Power 생 운동이 시작된 것은 학생 운동을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이조 시대 실학자들도 학생 중심, 학원 중심의 운동을 전개하였었고 일제하에서도 학교 및 본당을 중심으로 미흡하나마 학생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근대적인 학생 운동의 시작은 1945년 12월 서울 가톨릭 학생회가 발족된 이후부터라고 하겠다.

해방 이후 밀어닥친 서구 사회의 자유의 물결은 한국민을 방종의 탁류에 휩쓸리게 하였다. 이 때에 참 자유와 참 민주를 부르짖고 실천하려는 가톨릭학생회는 계몽, 노력, 봉사, 아학 등의 운동을 펼쳐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수많은 일들을 해왔다.

6·25 이후 1955년에 Pax Romana 가 창설되어 본부에 정식으로 가입하였고 전국 14개 교구 연합회를 묶은 「총련」(總聯)이라는 전국 단체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초기에 펼쳐 왔던 본당 중심 활동은 4·19, 5·16을 거치는 동안 학원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으며 따라서 Unit → (지구 협의회) → (교구 연합회) → (총 연합회)의 완전한 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활동을 벌여 왔었다.

1972년까지 매년 실시해 왔던 전국대회에서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의 제반 문제를 올 토의해 왔었고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학생회였던만큼 각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계속되어 학원 사태 등 여러 내외적인 사정으로 가 또한 수많은 가톨릭 학생 톨릭 학생회는 뚜렷한 방향이 없는 유명무실한 그룹으로 전락되었다.

1975년에 드디어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전국기구를 결성하여 주교단의 정식 인가 없이 현재까지 전국 협의회를 이끌어 오고 있다.

2. 「전협(全協)」의 성격

㉮ 목 적

1975년 1월 8개교구 학련 대표들에 의해 결성된 전국 협의회는

첫째, 「교구 학련」 상호간의 우애 증진

둘째, 학원 내에서 그리스도 신자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며

셋째, 대학과 사회에 복음을 전파시켜 사회 정의의 실현과 공동선을 추구하며

넷째, 다른 사목 기관 및 모든 선의의 단체와 협력하여 한국 사회 발전 및 세계 평화에 공헌할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 활동 방향

본회의 목적을 위해서는

첫째, 영신적 개인 성화 장과 광록, 부산 교련등이 와 복음 전파를 위한 활동 어쩔수 없는 사유로 불참

둘째, 종교·도덕·지성에 관한 연구 및 보고

셋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등의 제분야에서 전문적 사도직 연구 활동

넷째, 지도자로서의자질 향상을 위한 활동과 다섯째, 국내외 학생 단체와 친선 교류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3. 활동 사항

㉮ 전국 협의회

① 매년 1월에 전국 회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임원 개선, 학생회 현안문제 연간 지향 목표 설정, 사업계획에 대한 제 문제점 등을 심의하고 있다.

77년 1월 25일~27일 사이에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전국 회장단 회의에 대회장 및 운영 위원 등과 학생회의 내외적인 문제점 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⑦ 총련 해체 이후 단절되었던 Asia Pax 와 금년 7월 아시아 사무국장 및 홍콩 여부회장의 내한과 더불어 관계를 개선하여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 교구 연합회

각 교구 연합회는 교구 특성을 살려 배우 다양하게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는 데 이를 전체적으로 분류해 보면

① 회지 발간 : 순천 〈뜨 이라는 관념을 버리고 가 톨릭의 장래를 떠맡고 있다〉, 서울 〈시작가 없이는〉는 가톨릭 학생회, 우리나 라의 장래를 짊어져야 할 대학생들에게 아껴없는 후 원이 필요하다.

② 신앙 강좌 : 복음강좌, 우리 학생회는 항상 그 금요 강좌… 등의 각 교구 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비리스도의 수난을 기념하며 숫하다.

③ 세미나 : 종교 세미나,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지도자 성령 세미나, 학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세미나, 자아 발달 세미나 밑거름이 되는 것이 우리 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사 명(1977·4·17 가톨 릭 학생의 날에 보내는 메 시지)임을 기억하고 있다.

④ 강연회 및 성서 성월 전시회

⑤ 멘버쉽 트레이닝, 리더쉽 트레이닝 및 지역 대회, 학생 대회로써 지도 력과 발표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⑥ 각종 피정, 묵상, 순례, 기도회등으로 신앙심 고취에 힘을 쓰고 있다.

⑦ 군부대 방문, 요양원 방문, 고아원 방문 등의 각종 방문과 더불어 안내영 위안의 밤 등도 실시하고 있다.

⑧ 「가족의 밤」 「단위학생 회장단 모임」 체육대회 등 각 대회 등을 통하여 각 종 친선도 도모하고 있다.

⑨ 정기 총회로서 1년을 마무리 짓고 있다.

③ 금년부터 부활 제 2주일(4월17일)을 「가톨릭 학생의 날」로 가제 선정하여 모든 교구 연합회가 통일하여 이날 전국적으로 대회를 치렸다.

④ 가톨릭 학생 수첩과 뱃지를 만들어 4월에 전국 학생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가톨릭 학생으로서의 사명감을 지니게 하고 자부심을 가지게 했다.

⑤ 그동안 단절되었던 〈PAX〉지를 복간, 6월 30일 모든 회원들에게 이를 배부하였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삭제된 부분도 많이 있으나 가톨릭 학생으로서의 자세를 갖출수 있는 유일한 책자인 것으로 부활은 커다란 의미를 주고 있다.

⑥ 「전국 지도 신부단」 및 「학련 회장단」 연석 회의를 금년 7월 22일~23일 대전 가톨릭 문화관에서 8개 교구 지도자와 10개 교구 학련 대표가 참석, 학생회의 내외적인 문제점 등과 학생회의 방향모색에 있어 한국 사회의 현실을 그리고 젊은이이기에 우리 학생들은 내적, 외적인 갖은 악조건을 무릅쓰고 학생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적은 예산, 부족한 수의 지도자, 갖가지의 유혹을 무릅쓰고 활동하고 있다.

현재 본 전국 협의회가 주교단의 정식 인준도 받지 못한 가인준 상태에서 주교단에서 Pax Romana 에 지급하는 1년 회비 100만원으로 위의 모든 일들을 해 나가고 있다.

우리 회원들의 많은 노력은 실로 교회의 뒷받침 없이는 허무해지기 일쑤인 것이다. 온히 대학생을 볼 때 반학만 하고 있는 집단 이라는 관념을 버리고, 가톨릭의 장래를 떠맡고 있다는 것이 우리 나라의 장래를 짊어져야 할 대학생들에게 아껴없는 후 원이 필요하다.

우리 학생회는 항상 그 리스도의 수난을 기념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 우리 연구소장의 공로는 「교회와 교회의 공번된 사 업을 발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總聯 통해 체계적 운동
指導者의 資質을 함양
學聯 상호友愛도 증진

本堂중심서 學園으로 확산

「총련」의 미대와 더불어 발생되는 학생회와 교회, 학생회와 사회 여러 단체 및 학생회와 사회 행정부와의 복잡한 문제들은 1972년에 전국 기구인 총련의 해체를 몰아오고 말았다.

전국 기구의 해체와 더불어 각 교구별로 학생회 활동은 70년대 초반에도

玄錫虎소장에 敎皇훈장수여

서울 대교구 玄錫虎교리연구소장의 교황 공로훈장 수여식(사진)이 지난 7월 9일 서울 돈암동 상지회관에서 김수환 추기경 박사학위 수위 축하식과 함께 있었다.

현석호 교리 연구소장은 지난 5월 18일자로 교황 바오로 6세로부터 「대그레고리오 성인의 지위에 의거하는 기사대장(騎士隊長)의 칭호」를 부여받으면서 공로훈장을 받았다.

공로 훈장은 주한교황청 대사「도세나 루이지」대주교가 대신 수여 했다. 현석호 교리 연구소장의 공로는 「교회와 교회의 공번된 사업을 발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金壽煥추기경이 박사학위 수위 축하식에서 답사를 하고 있다

金壽煥추기경 博士學位 受位축하식

김수환 추기경 인권옹호에 관한 박사 학위 수위 축하식이 지난 7월 9일 서울 돈암동 상지회관에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을 위로하고 이날 전국적으로 기념하기 위하여 「인권 옹호에 관한 박사 학위를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옥중에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받아야 할 것」이라고 5월 22일 미국 노트르담 대학 졸업식장에서 「카터」 대통령과 더불어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었다.

서울 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날 축하식에는 서울교구 내 각 본당 주임 신부, 본당 회장, 단체대표, 수도자 대표등 1,백50여명이 참석, 이 자리에서 金추기경은 서울 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날 축하식에는 서울교구 내 각 본당 주임 신부, 본당 회장, 단체대표, 수도자 대표등 1,백50여명이 참석, 특히 반포 본당 어머니 성가대와 가수 한상일 형제의 구성진 노래는 여흥의 절정을 이루었다.

김수환 추기경 인권옹호에 관한 박사 학위 수위 축하식에서 답사를 통해 「인권 옹호에 관한 박사 학위를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옥중에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그분들을 대신해서 받는다는 의미에서 사양치 못한다」고 말했다.

경축식에 이어 조촐하게 마련된 연회에서 참석자들의 흥겨운 여흥이 있었다.

火災의 공포로부터 해방됩시다

✠ … 消火用 自動撒水器 메이커인 極東스프링크라(株)는 生産과 設備体制를 完全確立, 人命과 財産을 보호하는 여러분의 守門將으로서 24時間을 勤務하고 있읍니다.

□ 營業種目 □

- 各種消火機械製作
- 各種消火設備
- 스프링크라 해드
- 스프링크라 設備
- 自動화재警報설비
- 에어폼 해드
- 泡消火 설비
- 아람 밸브
- 水噴霧 設備
- 結合金具

○ 各種 空氣調和 設備
設計·施工·監理

極東스프링크라株式會社
代表理事 金 聲 鎭 (釜山 1次)

本社·工場 : 京畿道 富川郡 春衣洞 山 4 의 1
☎ 032-6~2287-8 (우) 150-711
서울事務所 : 서울 龍山區 漢南洞 683-116 極東빌딩
☎ 792-2300, 793-8495, 794-3118 (우) 140

▣ 상본 판매 개시

① 소형 (8 cm×11.5 cm) 1 매 5 원

시성·시복 촉진 기도 내용과 기도문이 들어 있으며 병인순교복자 24위 상본과 79위 상본 등 2종이 있읍니다.

② 대형 (43.5 cm×49 cm) 1 매 500 원

한국 순교복자 103위의 상본입니다.

주문처 : 각 지구 평협 각 본당 평협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서울 성북구 동선동 5 가 160 전화 ⑨④ 0670

현대의 복음 선교 해설

1975년 12월 8일 교황 바오로 6세께서 전세계 주교, 사제, 수도자 및 신자들에게 현대 세계라는 특수한 환경에 처하고 있는 교회로서 그 본질적 사명인 복음 선교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지를 교황의 서간 형식으로 사도적 권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권고서가 전 세계에 전달되기는 1976년 1월 중이었다.

문헌의 성격

교회 안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교자들을 격려하는 동시 세 가지 측면에서 조언을 하고 있다.

(1) 복음 선교 활동에 있어 애매한 것을 분별하여 제거하고 명백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책임을 지적하고 여러 가지 현실을 분석한다.

(2) 복음 선교에는 언제나 많은 장애가 뒤따른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 겪는 장애를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이겨 나가야 할 자세를 명시한다.

(3) 사도직의 수행을 위해서는 그 원천적인 생활을 재발견하면서 힘을 배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의 조류에 지배될 위험에 놓인다.

이러한 조언을 하고, 현대 복음 선교에 있어 사목적 반성을 촉구하고, 현대에 적응하는 복음 선교의 필요성, 새로운 방법, 새로운 문제들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방향을 명시한다.

문헌 발표의 계기

이 권고서를 발표하면서 세 가지 계기의 의미를 상기시킨다.

(1) 성년의 폐막을 기념해서: 하느님과 인간과의 화해, 인간과 인간과의 화해의 정신이 복음 선교 활동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지 10주년이 되는 기회: 공의회 이후 교회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는 반성.

(3) 1974년 제3차 시노두스 폐막 후 1년이 되는 기회: 시노두스의 주제가 「현대 세계에 있어서 복음 선교」이었고, 그 결론을 교황님께 의뢰하였었기에 이에 대한 결정적 방향을 제시한다.

권고서의 내용

전체가 7부로 구분되어 있다.

제1부: 복음 선포의 원천적 근거인 그리스도와교회의 역할과 위치 ④ 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의 역할 ⑤ 가정 ⑥ 서품되지 않은 평신도의 특수한 봉사직 등을 설명한다.

제2부: 복음 선교의 정신에 관하여 선교 활력의 회복을 강조한다. ① 성신의 역사하심 ② 진선성과 성덕에 의한 증거 ③ 진리의 탐구 ④ 일치의 정신 ⑤ 사랑의 정신 ⑥ 신자들에 대한 존중 등이 설명되고 있다.

제3부: 복음 선교의 내용에 관하여, 복음 선교의 본질과 목적을 설명한다. 성부의 사랑,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성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친교, 형제적 사랑, 고통의 의미,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의 희망등 복음은 사람의 모든 생활과 관계됨을 강조한다. 특히 시노두스에서 토의된 촛점이 되었던 「복음화와 해방」에 관하여 명백한 구분과 관계를 제시한다. 특히 복음적 해방의 뜻과 목적에 있어서 잘못 해석하거나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고 있다.

제4부: 복음 선교의 방법에 관하여 기본적인 것을 명시하고 있다. ① 생활의 증거 ② 생활한 강론 ③ 매스 미디어의 활용 ④ 성사 생활을 위한 교리교육을 강조하고 ⑤ 민간 신앙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하고 있다.

제5부: 복음 선교의 대상에 관하여 현실의 상황에 따라 설명한다. ① 미신자 ② 냉담자 ③ 지성인 ④ 비그리스도교 신자들 ⑤ 무신론자들과 세속주의자들 ⑥ 열심하지 않은 신자들 ⑦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목적 지원을 설명하고, 교회 기초 공동체에 대해서 명백한 방향 제시를 하고 있다.

제6부: 복음 선교를 위한 인간들에 관하여 언급한다. 먼저 교회 자체의 사명을 설명한 다음 세부적인 것에 언급한다. ① 교회적 행위 ② 보편적교회와 지역 교회와의 관계 ③ 교황의 역할과 위치 ④ 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의 역할 ⑤ 가정 ⑥ 서품되지 않은 평신도의 특수한 봉사직 등을 설명한다.

제7부: 복음 선교의 정신에 관하여 선교 활력의 회복을 강조한다. ① 성신의 역사하심 ② 진선성과 성덕에 의한 증거 ③ 진리의 탐구 ④ 일치의 정신 ⑤ 사랑의 정신 ⑥ 신자들에 대한 존중 등이 설명되고 있다.

결론: 선교에 대한 열의를 가져 달라고 호소한다.

특히 의무상실에 빠진 오늘의 현상을 지적하면서 신앙의 확신에서 선교의 열성을 회복하도록 당부하며 교황께서는 모든 복음의 사도들을 언제나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노라고 자부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끝맺는다.

— 책 소개 —

「현대의 복음선교」

교황 바오로 6세의 사도적 권고서 「현대의 복음선교」가 우리말 번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교황님의 권고서라는 서간 형식으로 발표되었지만 문헌의 성격과 내용상 교황님의 회칙과 맞먹는다는 전 세계의 평을 받고 있을 만큼 오늘의 교회의 진로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고, 교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중요한 문헌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1974년에 개최되었던 제3차 시노두스의 토의에 대한 교황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교회의 방향과 자세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면 이 책에서 그 해답을 다 얻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교님들, 신부님들, 수도자들, 평신자들 누구나 꼭 읽어 주셔야 할 교황님의 권고서입니다.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발행

이종홍 신부 역

국판 변형판 116면 값 700원

감사의 생활

〈평협 전국 회장〉 김 기 철

과거 이탈리아 주재 일본 대사였던 백조미부라는 사람은 2차 대전 직후 전범자로 스가모 형무소에 수감된 동안 직장 암으로 사망하였다.

그는 죽기 반년 전에 스가모 형무소에서 세례를 받고 평화스런 마음으로 죽은 것이다.

세례를 받은 후 그는 다음과 같은 심경을 말하였다고 한다.

「내 생애 가운데 신앙을 가진 지금보다 더 행복한 때는 없다. 이탈리아 대사로 외교계에서 화려하게 활약하고 있었던 때가 나의 전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 시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인 것이다. 죄를 용서받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속을 믿는 지금이야말로 나의 가장 행복한 때인 것이다.

나는 전범자로서 재판을 받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으며 직장암으로 죽는 것도 무섭지 않다. 다만 신의 앞에서 나의 내적인 깊은 죄와 그 죄의 재판이 두려울 뿐이었다.

그런 나의 죄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의해서 용서받을 것이다. 지금 같은 평안을 나는 과거에 미처 몰랐었다. 참으로 감사하다.」

이같은 백조씨의 고백록을 그것을 읽는 모든 이에게 깊은 감명을 준다. 신앙의 한 구원의 기쁨, 그 밑 평안이 우리 인간에게 주은총 속에 산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큰 것인가?

물론 이러한 일은 백조씨에게만 있는 일은 아니다. 우리들은 신앙을 가진 이후에 비로소 느끼는 기쁨과 보람과 평안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과 보람과 평안을 세속 생활 속에서 매순간 잊어버리는데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순간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이다.

그분은 한번도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한 일이 없읍니다. 그렇지마는 만일 그분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크리스마스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의 선물을 받은 일이 없읍니다. 그러나 그분은 역사에 나타난 그 누구보다도 매년 우리 사람들에게 선물을 생각하도록 하였읍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한 그분은 학교에 간일이 없읍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해일 수 없이 많은 학교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읍니다. 그분은 유대인이었지만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개성을 가지신 오직 한 분의 사람이시고 국가의 방침이나 인종적인 일을 초월하신 분이었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재판관에게조차도 공공연하게 말하였읍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치 못했다」라고. 그분은 누구와도 어울렸읍니다. 그분의 풍채는 말하자면 특별히 훌륭하지도 않았으며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없이 재산 일부를 털어 그분을 그린 성화를 구하고 있읍니다. 그분의 인생은 불과 33년이었읍니다. 그러나 그분은 역사에 나타난 그 누구보다도 매년 우리 사람들에게 선물을 생각하도록 하였읍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한 그분은 학교에 간일이 없읍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해일 수 없이 많은 학교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읍니다. 그분은 유대인이었지만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개성을 가지신 오직 한 분의 사람이시고 국가의 방침이나 인종적인 일을 초월하신 분이었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재판관에게조차도 공공연하게 말하였읍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치 못했다」라고. 그분은 누구와도 어울렸읍니다. 그분의 풍채는 말하자면 특별히 훌륭하지도 않았으며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없이 재산 일부를 털어 그분을 그린 성화를 구하고 있읍니다. 그분의 인생은 불과 33년이었읍니다. 그러나 그분은 역사에 나타난 그 누구보다도 매년 우리 사람들에게 선물을 생각하도록 하였읍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한 그분은 학교에 간일이 없읍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해일 수 없이 많은 학교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읍니다. 그분은 유대인이었지만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개성을 가지신 오직 한 분의 사람이시고 국가의 방침이나 인종적인 일을 초월하신 분이었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재판관에게조차도 공공연하게 말하였읍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치 못했다」라고. 그분은 누구와도 어울렸읍니다. 그분의 풍채는 말하자면 특별히 훌륭하지도 않았으며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없이 재산 일부를 털어 그분을 그린

크리스마스와 오직 한 사람

김 요 셉

성 바오로 출판사 근간 안내

격류를 헤치고

4·6판 182면 J. 사이츠 著 조 문 숙 譯

1939년 나찌 친위대에 배속되었던 한 젊은 수사가 불가능해 보이는 나찌의 지배하에서, 신앙인으로서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드디어는 사제 서품을 받는다. 사형 선고를 받아 놓고서도 선교사업의 理想을 추구하고 실현하려 한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지…… 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기도의 힘을 웅변으로 보여 주는 한 사제의 감동적인 생애.

♧참된 영성 생활의 길잡이

공동체의 기도서

▣ 성서를 바탕으로 삼아 한결같이 활기 넘치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공동체의 기도서.

▣ 가톨릭 전례 시계를 생생하게 체험케 하며 공동체 의식을 보다 깊고 넓게 느낄 수 있도록 짜인 묵상서.

▣ 가정과 교회 모든 단체 회원들이 각기 환경에 알맞게 공동으로 묵상할 수 있는 참된 영성 생활의 길잡이.

W. 스토리 지음

염 영 호 옮김 / 가톨릭출판사 발행

△ 4×6판 114면

△ 반양장 450원

* 주문: 가톨릭출판사·전국 지사 보급소·C.C.K·성바오로출판사 및 유명서점 (전국)

塗裝工事免許業体

東邦工営株式會社

① 塗料(페인트) 都散賣

② 工事請負

강 권 순(니고나오) 30次

☎ 28-7556
28-2569
(自)712-3721

서울 中區 會賢洞1街 194-24(會賢洞會 앞)